

러시아 지방의 지역별 범주화를 통한 연구방법의 모색 : 83개 연방주체를 중심으로*

황 성 우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교수

< 목 차 >

I. 문제제기	V. 결론
II. 전통적 의미의 '지역' 개념	참고문헌
III. 지역 개념의 범주화: 83개 연방주체	Abstract
IV. 지방연구의 단계별 연구방법	

Key words(중심용어): 러시아(Russia), 지역연구(Area Studies), 러시아 지방연구(Russian Locality), 연구방법(Research Methodology), 지역개념(Concept of Area)

국 문 요 약

지역연구는 태생적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인위적 지역구분이라는 자의성의 한계를 띠고 있으며, 명확한 연구방법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지역연구는 모호성과 자의성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지역 개념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연구방법 역시 모든 분과학문의 연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러시아 지방연구, 즉 83개 연방주체에 대한 지역연구는 첫째, 해당지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본과제로 하는 지역연구의 실용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현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분과학문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다분과학문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정책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지역연구는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 전공자들만이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학과 문학을 포함한 모든 분과학문 전공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학문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연구가 정체성을 의심 받은 이유는 학문 외적인 논리에 따라 발생한 지역연구가 명확한 학적 경계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지역연구'가 아닌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각각의 분과학문

* 이 논문은 201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전공자들은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 시각으로 지역연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배타성은 비단 국내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존재했던 현상인데, 학문적 필요가 아닌 정책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가 이러한 학문적 편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연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학적 체계임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지역연구는 무엇보다도 모든 학문의 공통분모, 혹은 교집합이라는 인식론적 합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I. 문제제기

100여개가 넘는 민족이 공존하는 러시아는 83개 연방주체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83개 러시아 연방주체의 행정체계는 크게 민족적 단위와 행정구역별 단위 두 개로 구분된다. 민족적 구분 단위는 다시 21개 공화국, 4개의 자치구, 1개의 자치주로 세분되며, 행정구역별 단위는 9개의 변경(크라이), 46개의 주, 2개의 특별시로 구분된다. 민족적 다양성과 연방주체 구성의 역사적 난해함, 중앙정부와 관계설정의 문제를 포함하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연방주체들은 러시아 인형 마트료쉬카식의 ‘상자 속의 상자 원리’에 입각하여 상위의 주체들이 하위의 주체들을 포함하는 수직적 관계로 조직화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83개 연방주체들은 연방구성 of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연방헌법에서 규정하는 법적, 행정적, 제도적 위상을 토대로 하여, 예컨대 공화국과 같이 고유한 헌법을 갖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등 독자적인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자치구나 자치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방주체들의 위상에 대한 논란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연방주체들의 통폐합 가능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83개 연방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인구별, 행정적, 영토적 구성을 보장받아 하나의 독립단위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강혜련 2005, 17-18).

이러한 러시아의 특수성 때문에 러시아 83개 행정주체들을 정형화된 연방차원의 단일한 틀로서 분석하는 것은 러시아 지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분석방식은 아니다. 더욱이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아젠다에서 러시아연방의 인문공간은 기본적으로 83개 연방주체를 포괄하는 러시아인의 거주지로서 ‘삶의 공간’(ecumene)이자, 그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생산하고 축적한 법률, 제도, 생산양식, 지식, 신념, 예술, 도덕 등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들이 축적된 총체적인 삶의 공간이다. 또한 러시아연방의 인문공간은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는 지리적 합일체로서의 단일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83개 각각의 행정주체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83개 연방주체가 하나의 ‘휴먼 모자이크’(human mosaic)를 이루어 각각의 단편들이 독자적인 개성적 특징을 띠면서 인접한 조각들과의 조화와 기능 속에서 상호 작동함으로써 ‘러시아 인문공간’이라는 단일한 거대도면을 구성하게 된다.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다의적 성향 때문에, 83개 연방 주체, 즉 러시아의 지방연구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분류방식의 지역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지역 개념의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아젠다에서 요구되는 것이다.¹⁾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아젠다는 인문공간, 즉 러시아인의 삶이 공간으로서 ‘러시아 지방’을 한국적 필요에 의해 재구성한다는 의미와 함께 러시아 인문공간을 ‘한국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방법을 모색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출범한지 20년이 가까워지지만, 러시아 지방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지방연구는 아직도 체계화되지 못하고 극동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측면의 산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개별적인 지방 차원의 연구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러시아연방 혹은 중앙정부에 대한 연구가 국내 러시아 연구자의 주된 관심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방연구가 부진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권세은 2005, 70).²⁾ 근대 민족국가/국민국가의 등장 이후 ‘국가=지역’ 단위가 우세하게 자리잡으면서 상대적으로 국가 속의 지방연구는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둘째, 과거 제정러시아나 소련은 과도하게 중앙집중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연구자들은 지방수준의 연구보다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의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 수준의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한 러시아 지방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본 글에서 쓰고자 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지역개념의 확장을 통해 83개 연방주체별 러시아 인문공간을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한국적 재구성을 견지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우리의 연구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기 기본적으로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구축이라는 문제로 고민했던 국내 정치학자들의 ‘늑대거미의 다보탑 쌓기’³⁾를 방법론적 모델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이 글은 서세동점의 시대 이후로 ‘번역의 국제정치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창조의 국제정치학’을 모색하고자 고민하는 정치학자들의 모습 속에서 러시아 지역연구 역시 한국적 시각을 통해 한국에 고유한 러시아 지역연구 모델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실적 대안을 위한 1차작업인 셈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국내에서 생산된 러시아 지방연구의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비교·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의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 재구성에 맞는 러시아 지방연구, 즉 83개 연방주체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의 지역연구 결과물들을 검토하여, 대

1) 발표자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밝히고 있는 기본적인 ‘한국적 재구성’의 맥락은 첫째, ‘**한국에 필요한**’이라는 의미로 러시아연방의 인문공간, 즉 83개 연방주체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화된 연구가 부재한 국내 학계의 현실적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적, 사회적, 학문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연구를 창출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과 관련 있는**’이라는 의미로 러시아 인문공간 전체, 혹은 전체를 이루는 구성단위에서 한국과의 연관성(역사적 연관성, 러시아와의 정치·경제 협력관계, 지정학적 관계, 지역간 경제, 문화 교류 등)을 찾고 연구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한국만의 시각**’이라는 의미로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학술적 기준이나 비판적 시각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이제까지의 구태에서 벗어나며, 동시에 러시아 학자들, 혹은 제3세계 학자들의 새로운 평가를 수용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익과 독자적인 시각에서 러시아 공간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의미이다.

2) 이 글에서는 러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자국의 지방 연구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3) ‘늑대거미의 다보탑 쌓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하영선, 남궁근 2007, 15-29).

상지역이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지방연구의 방법으로 적합한, 혹은 지방연구에 유효한 접근방법이 있는 경우 그 연구물들을 통해 방법을 찾고자하는 데에 있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지역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지역개념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83개 연방주체 연구, 즉 러시아 지방연구를 위한 새로운 지역 개념 유형을 모색해보고, 지방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정리하고,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아젠다의 방향을 나름의 생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II. 전통적 의미의 ‘지역’ 개념

오늘날에 이르러,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학문적 분위기에서 고유한 학문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며 ‘지식의 통섭’(統攝, consilience)(최재천, 주일우 2008 참조)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분과학문의 고유한 영역은 지켜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개별 분과학문의 연구영역과 연구대상은 중첩되지만, 각각의 분과학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정치현상을 분석해 들어가는 시각 및 분석의 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에 접근해 들어가는 분석시각과 그 도구라 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이 상이하다는 것은 결국 개별 분과학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사회현상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분과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적 도구에 따라 분석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연구 역시 학문의 경계가 흐려진 지식의 지형도에서 그 핵심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여타 분과학문과 학문적 ‘구별짓기’가 가능할 수 있다(전종한,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2008, 36-37).

지역연구는 ‘지역’을 매개로 하여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문학, 예술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원래 지역연구는 연구대상으로 ‘타인’(the other), 혹은 ‘타자’를 설정하고 그 타자성(ootherness)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삼아 출발한 학문이었다.⁴⁾ 더욱이 지역연구는 학문적 내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타국을 지배하기 위해 강대국들이 국가적, 정책적 지배수단으로써 이른바 ‘적에 대한 지식’(이문영 2010, 240)을 위해 지역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구조 등을 연구하려는 지극히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발생하였다. 다시 말해서 타자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타자상) 창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관찰 주체는 항상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강대국이었으며, 그 객체이자 대상은 비서구 지역, 즉 식민국가 혹은 약소국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연구는 어찌 보면 약소국에게는 암울했던 20세기의 시대적 필요에 따라 탄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4) 원래 지역연구는 인류학에서 비롯되었다. 유럽세계의 인류학이 비유럽세계를 연구영역으로 다루면서 시작된 지역연구는 20세기 들어 미국이 식민지배를 목적으로 비서구지역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면서 본격화되었다(정홍모 2002, 5)

5) 지역연구의 태동과 발생배경에 관해서는 다음의 도서를 참조하기 바람(정혜조 1998, 318-321; 이희수 1996, 5-7; 김경일 1996, 23-28; 전경수 1999, 18-25).

세계사적 필요에 의해 생산된 지역연구에서 지역이라는 개념은 자의적인 설정에 의해 다소 모호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즉 인식하는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정의가 변화되었다. 먼저 닐스 스티즈가드(N. Steensgaard)는 “아시아는 존재하는가?”라는 논문에서 1527년에 영국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를 예로 들며,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자의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설명하였다. 찰스 왜글리(C. Wagley)는 지역이란 한 국가일 수도, 문화지역일 수도, 생태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것들의 각 구획일 수도 있다고 정의하면서 지역 개념의 모호성을 언급하였다(矢野暢 1998, 56-57). 잘 알려져 있듯이,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지역 개념은 역내에 속한 여러 국가들의 역사, 언어, 민족, 종교 등을 무시한 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그 곳을 점령한 연합군사령부의 현실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통용되는 자의적인 용어이다(이수훈 1998, 595). ‘동유럽’이라는 지역 개념 역시 ‘東과 西’라는 냉전이데올로기의 결과물로서, 유럽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구분과 상관없이 조작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⁶⁾ 경제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는 ‘남북문제’ 역시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구획한 지역 개념이다.

오늘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 개념 중 상당수는 지리적 근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다. 과거 식민지시대 이후로 유럽국들의 제국적 지배 욕구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패권 지배방식에 따라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왜곡·조작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역은 극히 자의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만들어낸 과거의 시대적 편의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인식의 자의성과 지역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역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개념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범주들은 ‘국가=지역’이라는 기본단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첫째(범주 I),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경선을 경계로 하여 구분하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지역’ 개념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아, 등등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범주에 포함되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이 분류에 해당된다.

둘째(범주 II), 한 국가의 지리적 단위 및 행정단위로서 지역 개념이다. 미국과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인 경우에는 각각의 주(州)를 의미할 수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리적 구분에 따라 유럽러시아, 동시베리아, 서시베리아, 극동과 같은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단위로 구분하면, 83개의 연방주체가 모두 이 분류에 해당된다. 또한 국가내 사회·경제적 특성, 언어나 민족구성상의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들을 총괄하는 지역의 개념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예컨대 러시아의 경우, 정치적, 군사적 단위에 따라 8개 연방관구로 구분하거나, 혹은 경제적 단위에 따라 12개

6)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동서 냉전시기에 동유럽은 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지역개념이었다.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는데, 예컨대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보다도 서쪽에 위치하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동유럽 국가로 분류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은 이들 국가들을 중부 유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굳이 동유럽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라고 할 수 있다.

연방관구로 구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21개 공화국, 4개의 자치구, 1개의 자치주, 9개의 변경(크라이), 46개의 주, 2개의 특별시 등으로 구분할 때도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범주 III), 국경이 인접해 있는 몇몇 국가들의 일부 지역, 혹은 한 국가와 인접한 국가의 일부 지역을 지역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舊유고슬라비아 민족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크로아티아의 크라이나 지역(Krajina Region)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UN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있는 코소보 지역의 경우, 이 지역에 알바니아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경계와 민족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도 존재하는데, 이곳 역시 특정민족(알바니아계 이슬람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의 지역분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밖에 이 부류에 해당하는 지역은 1947년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에 산재해 살고 있는 편잡인 거주지역(Punjab Region), 파키스탄 및 아프카니스탄에 살고 있는 파쉬툰인 거주지역(Pashtun Region), 이란과 아프카니스탄에 살고 있는 발루치인 거주지역(Baluch/Baloch Region), 터키, 이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인 지역(Kurdish Region),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서벵갈주(West Bengal), 몽골과 중국의 내몽골 자치주 등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대표적으로 러시아연방에 속한 북오세티아와 그루지야에 속한 남오세티아 지역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

넷째(범주 IV), 몇몇 국가, 혹은 그 이상의 수를 포함하는 국가군에 포함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중부유럽, 라틴 아메리카, EU, CIS, GUAM, BRICs 등등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 21세기 국제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였던 색깔혁명의 발생국가, 즉 세르비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연구할 경우도 이 분류유형에 해당된다. SCO(상하이협력기구), CSTO와 같은 다자간 협력기구도 이 지역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 전통적 분류방식의 지역 개념

분류 범주	지역 구분의 예
I	A ₁ , A ₂ , A ₃ , A ₄ , A ₅ , ...
II	1 B ₁ , B ₂ , B ₃ , B ₄ , B ₅ , ...
	2 B ₁ + B ₂ , B ₁ + B ₂ + B ₃ , B ₁ + B ₂ + B ₃ + B ₄ , ...
	3 C ₁ , C ₂ , C ₃ , C ₄ , C ₅ ...
	4 C ₁ + C ₂ , C ₁ + C ₂ + C ₃ , C ₁ + C ₂ + C ₃ + C ₄ , ... (* C는 국내지역)
III	1 A ₁ + C ₁ , A ₁ + C ₁ + C ₂ ,
	2 A ₁ + A ₂ ... + C ₁ , A ₁ + A ₂ + C ₁ + C ₂ ... , ...
	3 C ₁ + C ₂ , C ₁ + C ₂ + C ₃ , ... (* C는 국내 혹은 다른 국가지역 가능)
IV	1 D ₁ = A ₁ + A ₂ ,
	2 D ₂ = A ₁ + A ₂ + A ₃ ,
	3 D ₃ ... = A ₁ + A ₂ + A ₃ + A ₄ , ...

이러한 전통적 지역 분류 개념은 나름의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즉 기본단위로 국가(A)를 상정하고 국가내 지리·행정지역(B), 국가와 상관없이 언어사용지역 혹은 민족거주지역의 범주로 구

분할 수 있는 지역(C)을 하위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위단위로서 공통의 속성을 공유한 국가군(D)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을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지역개념의 분류방식에 적용하여 정리하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A, B, C, D의 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네 가지 지역개념은 ‘국가=지역’ 단위라는 기본전제를 달고 있지만, 지역연구의 연구대상으로서 지역을 정의하는데 적절한 설득력을 지니며, 더 이상의 구분방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른 지역범주에 대한 지역연구방법으로는 ‘학제적 연구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분과학문의 파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에 개별 분과학문을 통합하려는 시도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은 학제간 연구방법은 분과학문의 배타적 학제체계가 정착되던 시기에 매우 혁신적인 연구방법으로 인식되었다(이문영 2010, 243). 그러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학제적 연구방법은 대상지역의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총체성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분과학문의 통해 폭넓게 해당지역의 연구를 진행하면 그것이 곧 학제간 연구방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즉 모든 분과학문을 통해 각기 부분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그것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만 할 뿐 전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하는 접근방식이 전제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이문영 2010, 245 재인용).

그러나 캄(E. S. H. Cahm)은 “지역연구라는 것은 전체 세계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특정한 방법으로서의 학문분야가 아니라, 서로 다른 학문들간의 협동이며,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특정문명의 특수한 환경을 밝히고, 프랑스적인 또는 러시아적인 경험이라고 말하는 전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학문분야들의 통합적인 적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연구의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세계 인민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자아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전경수 1999, 44-45 재인용)고 지적하면서 학제간 연구방법이야말로 지역의 총체성을 밝혀내는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학제적 접근방법을 하나의 연구방법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지역연구자들은 개념이나 이론적 진술, 이론의 통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에 근거한 특정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과학문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경우를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분과학문 전공자들의 논문들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전개한 것이 아니라, 사전의 토론과정에서 상호 교감하여 일관성을 갖춘 형태의 연구 결과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이중희 2001, 20-21).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공동연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학제간 연구방법이 국내의 지역연구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인가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도 아니다.

2000년 이후 인문학 및 해외지역연구 육성을 위해 한국연구재단(舊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추진한 인문학육성사업과 해외지역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생산된 연구결과물들이 과연 학제간연구방법에 의해 공동연구가 진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연구재단에서나 계획서상에서나 모두 학제간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효적 차원에서 그러한 학제간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오히려 학제간 연구방법이 받고 있는 학문적 비판, 즉 각각

의 분과학문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고, 그 결과물들은 단지 연구성과물들의 병렬식 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제간 연구방법은 개별적인 분과학문의 시각을 통해서 생산된 단순한 병렬적 나열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병렬식 조합이라는 학문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지역연구의 연구대상인 ‘지역’ 개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며, 또한 구체적인 대안적 연구방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대략적이고도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은 지역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밝혀주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연구와 지역학’이라는 용어상의 적실성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Ⅲ. 지역 개념의 범주화 : 83개 연방주체

최근 국내의 해외지역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지역연구의 지역 개념에서 유형화된 ‘국가=지역’이라는 분석단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역 개념의 설정을 시도하는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지중해, 카스피해, 환동해, 카리브해, 범흑해 등등 특정지역을 포괄하는 범지역권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러한 유형의 지역연구는 전통적인 분류방식에 포함될 수 있다거나(<표 1>의 범주Ⅳ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혹은 기존의 지역단위를 단지 집합적으로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지역연구의 지역개념을 설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⁷⁾ 왜냐하면 이 지역들이 ‘국가=지역’이라는 전통적인 기본단위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연구를 추진했다하더라도 공동의 이슈로 지역을 범주화시켜 지역연구를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본 글의 취지와 부응하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의 지방연구에 필요한 지역개념의 설정은 위와 같은 범지역권 연구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지역의 기본단위가 국가가 아닌 연방주체라는 하나의 지방이 기본적인 분석단위가 되기 때문이다.⁸⁾ <표 1>에서 서술하였듯이, 러시아 지방연구를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83개의 연방주체들은 ‘범주Ⅱ-2,’ 혹은 ‘범주Ⅱ-4’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광활함, 언어 및 민족적 다양성, 행정주체별 독립성을 감안하여 83개 연방주체들이 각각 하나의 독립단위로 상정된다면,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분류방식이 필요하다. 즉 ‘개념적 포용력’과 ‘지리적 상상력’을 결부하여 지역을 재조합한다면, 해당지역에 대한 개별연구가 좀 더 구체성을 띠며 종합적, 총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방식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가지는 보편적 속성에 지역적 특수성을 결부시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물론 이러한 연구가 아젠다에 대한 분석일 뿐, 새로운 문제의식이나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확인작업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다. 본문 내용과 각주설명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이문영 2010, 257). 이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슈로 범주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개념의 설정은 지역연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8) 러시아 지방연구에서도 예를 들어, 북극권 연구, 바이칼 지역 등과 같은 또 다른 지역범주도 가능하다.

예컨대, <표 2>에서 보듯이, 정치적 공간, 경제적 공간, 문화적 공간, 지리적 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을 설명할 경우 해당지역은 다층적이고 중층적 의미의 지역으로서 재해석될 수 있으며,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공간의 경우, 우선적으로 83개 행정주체들의 분류방식에 따라 공화국, 변경, 주, 자치구, 자치주, 특별시라는 기존의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대통령 전권대사가 파견되어 있는 8개 연방관구 역시 지역 개념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해 자행된 공간구획의 편의성에 따라 ‘조작된 공간’이라는 분류방식의 유형화도 가능하다. 지역이 가진 역사성과 민족구분, 해당민족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연방정부 차원의 인위적 경계구획으로 현재의 지역이 설정되었다면, 조작된 공간의 분류방식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하겠다. 그리고 ‘분열과 통합의 공간’이라는 유형화도 가능하다. 러시아연방은 다민족국가이다. 내부적으로 민족문제가 항시 내재되어 있다. 국가통합 차원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대변되는 분열과 통합의 공간은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시도로서 장애요인과 기회요인을 분석하는데도 적절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공간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12개 경제관구로 유형화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생산과 소비의 공간’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경제의 기반이 생산에 있는지, 혹은 소비에 있는지의 이분법적 구분은 해당 지역의 경제 구조와 산업별 형태, 자연자원의 분포, 소비패턴 등등을 연구하는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마케팅 공간으로서 도시연구 역시 소비문화의 장(場)으로서 도시 지역이 갖는 의미를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⁹⁾

문화적 공간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족, 언어, 종교의 구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행정구역으로서의 연방주체의 경계는 무의미해진다. 민족의 분포, 사용언어별 구분, 종교에 따른 또 다른 지역의 구분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러시아연방의 민족지도, 언어지도, 종교지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문화적 지형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역을 세분하여 도시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도, 도시가 가지는 전통적인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을 통해 도시연구의 구체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도시에서 공공시설의 사적공간화와 함께 사적공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현대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리고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강수), 식생, 토양에 따른 분류방식의 유형화도 가능하다. 지역의 환경적 조건과 그에 따른 해당민족의 생활양식, 주거형태, 전통문화, 경제환경 등등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이와 관련하여 세계도시지역연구론은 도시연구에 대한 적절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이재하 2003, 562-574).

10)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을 참조. Schroer 2010, 261-264.

<표 2> 지역 개념의 유형화에 따른 분류(예)

분류 범주		
I	정치적 공간	연방주체별 분류(83개 연방주체)
		연방관구별 분류(8개 연방관구)
		조작된 공간
		분열과 통합의 공간
II	경제적 공간	경제관구별 분류(12개 경제관구)
		생산과 소비의 공간(도시와 농촌연구)
		도시연구(마케팅의 공간)
III	문화적 공간	언어(러시아어, 타타르어, 우크라이나어, 소수민족 언어 등등)
		민족(러시아인,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 소수민족 등)
		종교(러시아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등등)
IV	지리적 공간	기후대와 강수대(대륙성 기후)
		토양(Inceptisols, Aquepts, Spodosols, Afisols 등등)
		식생(툰드라, 타이가, 스텝, 사막 등등)

이와 같이 지역 개념이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모호함과 자의성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지역개념을 고안해낼 수 있고, 이를 통한 유형화된 지역연구도 가능하다. 즉 러시아 83개 연방주체들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포함한 독립단위지만 유형별로 범주화를 통해 연방내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83개 연방주체들의 개별연구 및 비교연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IV. 지방연구의 단계별 연구방법

지방연구 연구방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초단계-심화단계-종합단계’라는 세 가지 유형의 연구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기초단계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집·분석·정리·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단계에서는 분과학문별 접근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주제를 통한 연구를 진행한다. 3단계인 종합단계에서는 유형별로 범주화된 유사한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타 지역과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고찰하여 지역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계별 연구방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각각의 단계가 상호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연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단계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1단계를 거쳐서 2단계로 진입하고, 2단계를 거쳐야만 3단계 연구방법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들은 하나의 논문/저서 속에 포함될 수도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진

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상황과 연구주체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별(표 4의 I, II, III), 두 단계별(표 4의 I-II, I-III, II-III), 세 단계별(표 4의 I-II-III) 연구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총 7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계별 연구방법에 앞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이다. 83개 연방주체에 대한 러시아 지방연구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조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적 재구성’이 취지를 살리기 위한 연구방법의 전제조건은 바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현지조사이다.

현지조사를 위해서는 적절한 측정방법이 필요한 데, 구체적 방법으로 참여관측(Participant Observation)은 비교정치의 사회조사분석방법의 하나로서 측정기법 중 가장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관측자가 분석대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여관측에는 다음의 네 가지 유형이 있다(김웅진, 김지희 2000, 140).

- **직접관측(Direct Observation)** : 연구대상 집단의 행위양식과 태도를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단순관측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 **탐문관측(Interviewing)** : 응답자가 현장에 뛰어들어 개인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특정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인식, 태도 등을 묻는 정보제공자 탐문(Informant Interviewing)과, 아무런 교분이 없는 사람들에게 같은 것을 묻는 응답자 탐문(Respondent Interviewing)으로 나뉜다. 물론 탐문은 질문지조사와 같이 체계적으로 구축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문헌분석(Documentary Analysis)** : 연구대상에 관련된 통계자료나 기록 등을 현장에서 추적·발굴하여 분석하는 측정수단을 지칭한다.
- **직접참여(Direct Participation)** :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집단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참여를 통해 나눔으로써 자료를 획득하는 수단을 의미한다.(김웅진, 김지희 2000, 140)

현지조사를 통해 구축된 자료들은 단계별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먼저, 1단계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은 기초조사를 위한 양적 방법으로서 해석학적 연구방법, 통계학적 분석방법, 설문조사방법 등등이다. 1단계의 연구내용들은 지역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구축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유용한 연구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다. 1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항목들은 <표 3>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추적·발굴 통해서 축적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최근에는 개관적인 기본정보는 인터넷이나 해외로 주문한 도서들을 통해서도 축적이 가능하지만, 연구주체에 따라 반드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해당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은 현지에서만 획득이 가능한 것도 많다.¹¹⁾

11) 필자가 2010년 8월 노브고로드 주에서 수행한 현지조사의 경우, 우리에게 아직까지 생소한 지역인 ‘스타라야 루사’(Старая Руса), ‘발다이(Валдай)’ 구릉지대 등등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자료들은 해당지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였다.

<표 3> 지역의 기본정보(예)

세부주제	세부내용(예)
개관	개황(약술), 역사(연대표), 문장, 상징 등등
자연지리	위치, 위(경)도, 지도, 면적, 강, 하천, 산맥, 국경, 해발, 기후, 토양, 천연자원, 토지, 식수 및 농산업용수의 공급, 수질오염, 공기오염도 등등
인구, 민족	인구, 인구성장률, 출생률, 사망률, 이동인구비율, 성비, 유아사망률, 평균수명, 에이즈인구, 종족/민족의 종류, 분포, 종교, 언어, 문맹률 등등
정부, 행정, 정치	행정단위 (주, 시, 현, 읍, 면 단위), 행정체계, 행정부 명단, 법무체계 및 기관, 정당, 정당의 구성(지도자, 당원 등), NGO 및 이익집단(단체 및 구성원 소개), 투표율, 유권자수, 연령별 유권자, 직업분류 등등
경제	GDP, GDP 실제성장률, GDP per capita, 산업부문별 GDP, 노동인구, 직업별 노동인구, 실업률, 극빈자 인구비율, 가구별 수입 혹은 소비율, 가족소득의 분배, 인플레이션, 투자율, 예산, 부채율, 주요농산물, 주요산업, 산업성장률, 전기생산력, 전기사용량, 전기 수출입, 석유 생산 및 소비율, 석유수출입, 천연가스 생산 및 소비율, 천연가스 수출입, 수출액, 수출상품, 국가별 수출비율, 수입, 수입상품, 국가별 수입비율, 외환 및 금 보유액, 부채, 화폐, 환율, 소비성향
커뮤니케이션	총 전화선 사용분포 및 회선, 휴대폰사용자수, 전화체계,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인터넷 코드, 인터넷 호스트, 인터넷 사용자
교통, 운송	비행장, 헬기장, 파이프라인, 기차로, 도로, 수로, 해상로, 항구, 기차역
군사	군사기지, 군복무 연령 및 기간, 군 인력, 군사비지출

다시 말해서 기본정보로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한 기본개관, 즉 해당지역 현황과 역사적 형성과정, 지역의 지리 및 기후 환경과 부존자원의 분포, 인구수, 인구성장율, 연령별 분포, 지역내 분포, 교육기관, 교육수준, GNP/GDP, 물가상승률, 국제수지, 환율, 생산성 등등 경제관련 기본지표, 임금수준, 노동시간, 실업률, 사회복지 수준 등등 사회관련 기본지표 등등 역시 1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이다(신경환, 황기돈 1997, 91).

2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사례분석방법이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분석대상인 지역에 접근해감으로써 해당지역에 대한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소수민족의 문화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류학적 방법을 사용한다거나(김주관 1999, 81-98), 섬과 같은 도서지역과 도서지역의 문화를 고찰한다거나(이운선 2007, 367-401 ; 이현종 2008, 89-122), 지역종교를 분석하고(이용범 2004, 169-316),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역정체성을 분석(이희현, 최재현 1998, 557-574)하는 경우도 있다. 2단계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표 3>에 나오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체 유권자, 연령별 유권자, 직업별 유권자, 남녀유권자, 거주지별 유권자, 정당 지지도 등등 필요한 기본정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3단계 종합단계에서는 인터넷 및 참고도서, 현지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보들을 몇몇 지역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비교분석방법의 우수성은 지역의 독자성에 근거한 특수성을 추구하여 생산된 자료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자료들을 비교연구를 통해 그 지역을 특수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각 지역의 공통성에 기반한 보편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지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비교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지역에 대해 몰입한다는 것은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자칫 해당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과할 수 있다(이중희 2001, 15-16).

<표 4> 연구방법의 유형(예)

단계		분류 범주(예)		
		대상(기본단위)	연구방법	
I	기초단계	연방주체	양적 방법	해석학적 방법
				통계학적 분석방법
				설문조사방법
II	심화단계	연방주체 (범주화된 공간)	사례분석 (단순사례분석)	개별 분과학문의 방법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
III	종합단계	범주화된 공간	비교분석 (교차사례분석)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

단행본 출간을 위한 공동연구를 위해 3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은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multidisciplinary approach)이다. 이 경우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에도 두 가지 수준의 연구가 존재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은 특정주체에 대해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가 발제하여 종합토론이라는 협력과정을 거치지만 각자의 분과학문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하나의 연구성과물, 즉 단행본으로 출간한 경우이다. 낮은 수준의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은 특정주체에 대해서 정해진 토론없이 다양한 학문분야의 전공자가 집필한 논문을 하나의 연구성과물, 즉 단행본으로 출간한 경우이다.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에서는 어디에서나 각 분과학문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통의 개념정의, 이론적 진술, 이론을 사용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분과학문 고유의 개념이나 이론을 그대로 사용한다(이중희 2001, 21).

이러한 다분과학문적 연구방법은 학제간 연구방법의 이론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다분과학문적 방법의 장점은 특정 분과학문에서 사용하는 개념만을 고집하지 않고, 각각의 분과학문에서 정의한 개념과 연구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모두 적용하자는 것이다. 특정분야에 한해서 선택된 분과학문의 개념과 연구방법이 이론적, 실제적 적실성을 갖는다고 해도 이러한 개념과 연구방법이 모든 정치사회현상 및 문화적 행태들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연구와 같이 지역의 총체적 이해를 기본과제로 삼

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개별 분과학문의 이론과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역연구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궁극적인 학문적 목적이 아니라, 연구대상으로 정해진 인간의 정치사회현상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그것도 실용성을 강조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연구는 궁극적으로 진리탐구를 추구하는 개별 분과학문의 학문적 경향이나 학문 자체를 위한 순수학문의 학문적 경향과 동일한 역사적 궤적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개별 분과학문의 시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을 매개로 하는 연구대상을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지역연구의 기본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전경수 1999, 17). 이 경우 모든 분과학문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다분과학문적 연구방법이 지역연구에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연구는 태생적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인위적 지역구분이라는 자의성의 한계를 띠고 있다. 또한 명확한 연구방법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모호성과 자의성으로 인해 좀더 자유로운 지역 개념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연구방법 역시 모든 분과학문의 연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러시아 지방연구, 즉 83개 연방주체에 대한 지역연구는 첫째, 해당지역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기본과제로 하는 지역연구의 실용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현지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모든 분과학문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포괄할 수 있는 다분과학문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넷째,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정책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지역연구는 흔히 말하는 사회과학 전공자들만이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어학과 문학을 포함한 모든 분과학문 전공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학문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연구가 정체성을 의심받은 이유는 학문 외적인 논리에 따라 발생한 지역연구가 명확한 학적 경계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지역연구’가 아닌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 각각의 분과학문 전공자들은 자신의 학문적 영역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 시각으로 지역연구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배타성은 비단 국내에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존재했던 현상인데, 학문적 필요가 아닌 정책적 필요에 의해 발생한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가 이러한 학문적 편견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었다.

있지 말아야 할 사실은 지역연구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학적 체계임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지역연구는 무엇보다도 모든 학문의 공통분모, 혹은 교집합이라는 인식론적 함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연구방법으로 알려진 학제적 접근방법의 올바른 선택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은 결국 그 자체로 지역연구는 모든 분과학문의 연구방법을 공유하고 인

정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다양한 연구방법과 방법론을 가지고 지역연구자들이 공통의 연구대상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학제적 접근방법이고, 다분과학문적 접근방법인 것이다(이중희 2001, 13). 이 경우 지역연구는 모든 분과학문 전공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학문적 공통분모라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인식론적 함의에 도달한 이후 지역연구자가 취해야 할 지향점은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즉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주체인 서구가 객체인 비서구를 지배할 목적으로 탄생한 지역연구는 문화상대주의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타자와 타자성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나가 타자의 프리즘을 통해 ‘나와 우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즉 지역연구는 타자를 통해 비판적 자기성찰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서구만이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비서구 역시 지역연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서구가 객체가 되는 지역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러시아 지방연구 역시 비록 심층적이라 해도 해당지역에 대한 연구로만 끝이 난다면,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연구의 학적 체계와 방법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는 셈이 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창의적으로 지역을 재설정하고, 포괄적 연구방법을 통해 우리 이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지방연구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끌어내야만 우리의 독창적 연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이 ‘러시아연방 인문공간의 한국적 재구성’ 아젠다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한국의 해외지역연구에서 가장 필요한 연구대상 지역은 ‘한번도 감히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미국이 아닐까’(이문영 2010, 257)라는 한 연구자의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미국발(發) 미국학의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구성되는 미국지역연구 같은 식의 발상의 전환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이문영 2010, 257)는 주장은 지역연구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적 지역연구의 모델을 창출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인식론적 방향전환이다.

‘국가이익의 전략적 극대화’라는 기존의 일방적 서구식 지역연구로부터 벗어나 창의적인 한국적 재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의 지역연구가 서구가 아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제3세계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정책적으로도 국내의 해외지역연구 프로젝트가 서구가 아닌 비서구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적 재구성’이라는 오늘날 지역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련(2005). 『러시아 지방의 정치적 특성과 유형화』. 서울 : 오름.
- 고선규(2003). “일본의 지역연구에 있어서 정치학의 현황과 과제.” 『국제지역연구』. 제7권. 제1호, pp. 71-99.
- 공영호(2005). “러시아 연방지구 문화특성연구: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연방지구를 중심으로.”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18권, pp. 469-499.
- _____(2004). “러시아의 지역문화 연구방법론 고찰 : 로트만 이론을 중심으로.” 『슬라브研究』. 제20권, 제1호, pp. 209-228.
- 권세은(2005). “러시아 지방연구 방법론 모색을 위한 시론.” 『슬라브研究』. 제21권. 제2호, pp. 69-97.
- 권세은 외(2006). 『러시아 지방의 체계적 이해』. 서울 : 경희대 출판국.
- 권정화(2001). “부분과 전체 : 근대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7권. 제4호, pp. 81-92.
- 김경일(1996). “미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The Area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the United States).” *Ducksung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3, pp. 21-53.
- 김성국(1995). “지역학으로서의 부산학 연구 :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문』, pp. 45-50.
- 김웅진, 김지희(2000). 『비교사회연구방법론』.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주관(1999). “인류학적 자료와 지역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미국 남서부 아타바스칸어 사용 부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제1권. 제2호, pp. 81-98.
- 노명환(1999). “지역학의 개념과 방법론: 일상생활문화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3권, 제1호, pp. 3-30.
- 박수현, 신범식(2006). “‘제3세대’ 이후 국내 러시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16권. 제2호, pp. 319-355.
- 박인호(1997). “地域研究의 領域과 方法論: 지역개발,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권. 제1호, pp. 19-28.
- 박태화(2002).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pp. 161-169.
- 신경환, 황기돈(1997). “국제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일고찰.” 『국제통상연구』. 제2권. 제2호, pp. 79-100.
- 안승국(1998). “비교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인과적 추론 : 방법론적 쟁점과 대안적 연구전략의 모색.” 『國際政治論叢』. 제38권. 제1호, pp. 3-16.
- 양오석(2008). “유라시아 지역연구를 위한 방법론 소고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창조적 통섭.”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4호, pp. 171-206.
- 이문영(2010). “1990년대 이후 지역연구의 쟁점과 전망.” 『中蘇研究』. 제34권. 제2호, pp. 239-260.
- 이병락(2001). “국가 군집(群集)에 기초한 지역연구 방법론: 동구 및 구소연방의 경우.” 『국

- 제지역연구』. 제5권. 제1호, pp. 183-213.
- 이수훈(1998). “한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이상섭, 권태환 편. 『한국의 지역연구 : 현황과 과제』.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589-609.
- 이용범(2004). “지역종교의 조사 및 서술방법론 정립을 위한 제언.” 『종교문화비평』. 제6권, pp. 169-316.
- 이윤갑(2004). “지역학 연구의 방향과 방법론.” 『東方漢文學』. 제26집, pp. 9-36.
- 이윤선(2007). “도서문화연구의 전개와 문화콘텐츠 시대의 지향 : 『島嶼文化』의 활용론적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29권, pp. 367-401.
- 이재하(2003). “세계도시지역론과 그 정책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4호, pp. 562-574.
- 이재하(1997). “세계화시대에 적실한 지역연구방법론 모색 : 세계체제론적 지역지리학의 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3권. 제1호, pp. 115-134.
- 이정훈(2004). “지역개발에서 차별화된 장소이미지 선정을 위한 장소분석 방법론 재구축.” 『地理學研究』. 제38권. 제4호, pp. 479-495.
- 이중희(2001). “지역연구의 대상과 방법.” 『국제지역연구』. 제5권. 제3호, pp. 3-27.
- 이현중(2008). “서남해안 도서지역 고고학연구와 방법론.” 『도서문화』. 제32집, pp. 89-122.
- 이희수(1996). “지역연구 방법론 고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6권, pp. 1-19.
- 이희연, 최재현(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제33권. 제4호, pp. 557-574.
- 장인성(2009). “융합학으로서 지역연구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Journal of Contemporary Society and Culture*. Vol. 29, pp. 115-136.
- 전경수(1999). 『지역연구, 어떻게 하나』. 서울 : 서울대출판부.
- 전중환,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2008). 『인문지리학의 시선』. 서울 : 논형.
- 전홍찬(2006). 『통계로 이해하는 러시아』. 서울 : 집문당.
- 정혜조(1998). “지역연구의 연구방법론(I).” 『국제지역연구』. 제2권. 제2호, pp. 317-334.
- 정홍모(2002). “동유럽연구 새 개념도구로서의 전환 : 독일-미국 학계의 비교관점에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3호, pp. 3-31.
- 조기숙(1998).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 정체성과 방법론.” 『世界地域研究論叢』. 제12집, pp. 7-34.
- 조은라, 윤순식, 나송주, 황의조(2009). “상상력과 현대사회에 대한 다층적 분석: 창의적 상상력 모델 개발에 대한 일례.”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pp. 501-520.
- 최병두(2005). “지역문화환경 발굴을 통한 지리연구 및 지역발전 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pp. 1-18.
- 최 협 편(1997). 『인류학과 지역연구』. 서울 : 나남출판.
- 矢野暢(1998). “지역학이란 무엇인가?” 김경일 편.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서울 : 문화과학사, pp. 56-57.
- Markus Schroer(2010).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 배정희 옮김, 서울 : 에코리브르.

Abstract

Seeking useful Research Methodologies for Russian Locality: categorization of 83 Federal Subjects

Hwang, Sung-Woo*

Russia is a federal state consisting of 83 federal subjects. Each subject might be called as an independent unit and has its own historical, cultural and economic indigenous characteristics. Thus this article explores some useful research methodologies through categorizing Russian regions. Due to conceptual ambiguity, arbitrary regional divisions, and lacks of original research methodologies, area studies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scholars. Paradoxically, however, scholars who related to area studies have also merits to define regional concepts in creative ways. In additions, it is possible for scholars conducting area studies to employ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from many disciplines. Area studies on Russian locality, namely, on 83 Russian federal subjects include as follows: firstly, products of area studies have to correspond exactly to practical purpose of area studies. Because area studies are to aim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regions. Secondly, area studiers have to implement field research with thorough advance preparations. Thirdly, scholars nee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using of various sorts of concepts and methodologies. Finally, products of area studies have to include some specific information which help policy-makers for Korean government pursuing national interest.

■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3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

* HK Professor,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